

실속 재테크

달라진 '연말정산'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이 혜택 '쏠쏠'

연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어 월급 생활자들은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지, 늘어날 지에 관심이 많다.

달라진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번갈아 쓰면 연말 소득공제에 잇점이 많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체크카드 공제율이 올해 25%에서 30%로 늘어나 소득공제에 유리해졌다.

특히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공제율(30%)이 적용되고 한도(별도 공제 한도 100만원)도 높아졌다. 대형마트 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 유리한 것.

또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도 전세자금 대출원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점 역시 챙겨야 한다. 올 연봉이 5240만원인 기아자동차

결제 수단,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가 더 유리

연봉 5천만원 근로자도 전세자금 소득공제 대상

직인 박모씨의 연말정산을 예로 들면, 박씨는 주부인 아내와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10살 아들, 유치원생인 5살 딸과 함께 1억원을 대출받아 80㎡(24평) 규모의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

연말 정산에서 박씨의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점은 연봉이 아니라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다. 박씨는 회사에서 매달 식비 10만원, 자녀보육비로 10만원씩을 받는다. 해당 급여(총 240만원)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 박씨의 총 급여는 5000만원이 된다.

박씨는 보험료로 연간 120만원, 아들 교육비로 400만원, 딸 교육비로 200만원을 지출한다. 신용카드나 현

금(현금 영수증)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고, 이중 절반인 500만원은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써왔다.

박씨가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한 금액은 전체 지출액 2000만원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공제율(30%)이 높은 쪽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내년 신용카드 공제액은 168만7500원에서 22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만 공제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원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받게 된다. 공제대상이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돼 박씨도 해당되기 때문. 연간 상환액(1200만원) 중 40%(480만원)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박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박씨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총 146만1813원이다. 그러나 내년 내는 세금은 이보다 38만원 가량이 줄어든 108만1088원(108만7750원) 정도다.

이 많고, 전세대출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대출원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받게 된다. 공제대상이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돼 박씨도 해당되기 때문. 연간 상환액(1200만원) 중 40%(480만원)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박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박씨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총 146만1813원이다. 그러나 내년 내는 세금은 이보다 38만원 가량이 줄어든 108만1088원(108만7750원) 정도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쉬운 가을 상차림

가을이다. 곡식이 하나 둘 익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날마다 떨어진 밤송이를 깬다. 이맘때쯤이면 우리 집에 손님도 늘어난다. 집에 온 손님이니 그냥 보내지는 못하겠고 해마다 반복하다보니 이젠 제법 모양새를 내게 되었다. 언뜻 보면 화려한 상차림이나 들여다보면 텃밭 야채에 시장물건 조금 보탠 것들뿐이다.

두부와 도토리묵 모자이크 판=말 그대로다. 두부와 묵을 몇 조각으로 썰고 사이사이에 비치해 바둑판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그 위에 빨간 미니 토마토나 푸른 잎 몇 올린 장식은 끝인데 옆에 양념을 곁들 담아낸다. 참 나만의 양념비법이 있다면 간장과 참깨 참기를 달고도 약간의 육수를 넣는 것이다.

만드는 방법은 컵에 벌치 몇 마리 넣고 커피 물 붓듯이 뜨거운 물 조금 부어 10분쯤 후에 쓰면 되는데 특유의 간장 냄새가 줄어들어 더 담백하다. 이마저도 귀찮으면 지난해에 소개해드렸던 천연 조미료 가루 조금 넣어도 좋다. 사실은 그냥 묵과 두부의 평범한 맛인데도 작은 변화(?) 때문인지 손님들의 카메라 모델이 늘었던 목욕이다.

이채꼬치=필요한 재료로는 대파와 가지, 그리고 미니 토마토와 양파와 동그란 어묵이 전부다. 어묵을 제외한 모든 재료는 꼬치에 꽂을 정도로 썰고 소금과 후추 그리고 참기를 조금 넣고 버무려 놓는다. 그리고 색을 맞춰가며 꼬치에 꽂아 오븐에 구우면 되는데 야외라든 불을 피워 구워 먹어도 맛있다. 참 대파는 하얀 머리 부분만 쓰라는 것. 구워 놓으면 달착지근하게 변

대파·가지·어묵 꼬치에 꽃아 양념 오븐에 구우면 보기좋고 맛도 그만



하는데 쫄깃해진 어묵과 어울려 여기 말로 '개미'가 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두부에 마요네즈 소금 후추 레몬즙과 치즈 가루 뿌린 것을 넣어 끼얹어 먹어도 좋고 취향에 따라 머스터드나 케첩을 찍어 먹어도 좋다. 물론 어묵 대신 소시지나 야채만 꽂아도 좋다.

참나물=고기에 먹으면 미나리와 셀러리를 합한 듯 언제 먹어도 개운하고 상쾌하다. 잘 씻은 참나물은 익힌 줄기를 따 버리고 생채로 무쳐내는데 만들어 놓은 소금 몇 손가락 넣고 참기름과 깨만 치면 끝이다. 색깔이 안 날라 싶으면 고춧가루 조금 더 넣으면 좋다. 게다가 참나물은 베타카로틴이 많아 안구건조증이나 비만방지에도 좋다고 하니 현대인들에게 안심맞춤일 것이다.

음식은 손님들 얼굴 맞으며 차리는 것이라 했다. 너무 속속거나 말라 버린 상차림에선 맛도 멋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메뉴들은 '딱'이다. 꼬치를 오븐에 넣어 놓고 썰어 내거나 무쳐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지 않기 때문이다.

올 해에도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 같다. 묵묵히 밥 한 끼 대접하리라. 그 밥 때문에 서로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마음까지 부른 밤상. 바로 내가 차리고 싶은 가을 밤상인데 욕심이라나.

<임동률의 열 두 달 살림법> 저자 jazzchants@hanmail.net

K팝 열풍 기획사 주가 급등

이수만 주식가치 1600억대

케이팝(K-POP) 열기를 타고 연예 기획사들의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연예인 주식가치가 사상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

21일 재벌닷컴이 전일 종가 기준으로 유명 연예인의 주식 지분 가치를 평가한 결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은 개인통산 최고액인 1657억 원을 보유해 연예인 주식부자 신기록을 세웠다. 이 회장은 24.43%의 지분을 가진 SM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전일 사상 최고가인 4만1000원에 마감했다. 인기 걸그룹인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 등 아이돌 그룹이 소속 연예인으로 있는 SM은 유럽·중국·일본 등지에서 '신한류'를 주도했다.

아이돌 스타 그룹인 '빅뱅'과 '2NE1'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이사의 지분가치는 838억8000만원으로 2위였다.

코스닥 상장사인 키이스트의 대주주이자 한류스타 배운준 씨는 121억 30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광주 산단의날 '뮤직 페스티벌'

기업의 근로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단단지 뮤직 페스티벌'을 열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본부장 최중태)는 21일 광주 서구 첨단지구 중앙호수공원에서 광주 첨단·평동·하남산단과 장성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단단지 뮤직 페스티벌'을 열었다.

<산단소 호남권본부 제공>

5대 그룹 오늘 조선대서 채용설명회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22일 조선대에서 채용 설명회를 연다.

이들 5대 그룹 인사 담당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조선대 IT홀에서 광주·호남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룹별 채용 정책과 취업 준비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또 성공적인 취업준비 전략에 대한 조언과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지난해 대기업에 취업한 선배가 생생한 취업 성공 정보도 전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전복장터' (Abalone Market) featuring various seafood dishes like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and 전복우이찜.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location details.

Advertisement for 'Grand Open 1주년 기념' (1st Anniversary) at '상무지구 호텔 예술의전당' (Sangmu-gu Hotel Arts Center). Promotes wedding and banquet services with 50% discounts and various entertainment options.